

## 영적원리 XVII.

###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신앙이 침체되어 가는 과정

#### 1. 성장과 성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에베소서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20]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5:12-14]

12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 2. 창조적 신앙은 ‘새로움’이 있는 신앙이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이다. 이에대한 반대 개념은 ‘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새로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또 내일 또한 다르다. 1분 1초에 맞추어 움직이는 완전히 복사된 시간은 없다. 창조는 새로움의 연속성이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 새로움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예레미야애가 3:23]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큼니다.”

[고린도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존재’를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온전한 정체성이다. 이 새로움은 역동성, 에너지, 활력, 기쁨, 소망, 꿈 등을 의미한다.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날마다 새로워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창조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성경은 ‘새로움-NEW’를 강조한다. 생명은 ‘새로움’을 아는 것이다. 새로움은 없던 것이 생겨난 창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간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하셨다. 그러므로 ‘새로움’은 창조에 속한 영역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새로움’이며 창조의 결과이다.

#### 3.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날마다 창조의 영역안에 있는 ‘새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제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이다. 또한 삶 자체가 ‘창조적 에너지’로 충만하다. 이 사람에게 매너리즘이 있을 수 없다.



#### 4.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존재의 영역, 즉 관계의 영역이다.

창조는 모든 피조물이 '수동적 존재'가 아닌 '주관적 능동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능동적 자유의 핵심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성립은 '창조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피조물의 정의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정의 해주셨다.

[출애굽기 3:14]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대명제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신앙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온전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스스로의 물을 채울 수 없다. 빈 컵과 같은 내 자신이 온전한 생수되신 하나님의 강 안에 잠겨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상태가 '충만함'이다.

모든 피조물의 새로움은 날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 5.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 (1) 창조적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존재적 신앙의 결여를 의미한다. 날마다 무엇을 하는 '행위적 신앙'에 기초한다. 행위는 본질이 아니다. 존재가 본질이다. 행위를 통해서 본질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 (2)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은 존재하나, 이 갈망이 온전히 옮겨지는 거룩한 습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서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은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아는 일, 갈망하는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끝난다. 아무런 변화와 발전이 없다.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성장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한다. 무슨 말인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점은 하나이다. 어린아이는 수동적 삶이고, 어른은 능동적 삶이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4:20]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약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5:12]

12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3)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이 땅에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는 일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거룩한 습관이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의미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노력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일) 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새로운 변화는 실제적으로 전혀 없다.

**(4)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다. 매너리즘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며, 그 첫째가 게으름이다.

**(5)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린다.**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움직이라'고 말한다.

**(6)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스스로 준비하는 삶을 말한다.**

**(7)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며, 침체와 매너리즘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8) 목상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